

## 청소년 문학의 ‘굴절(refraction)’ 양상 연구: 번역규범과의 기능적 관계를 중심으로

최 지 영\*

(단국대학교 교수)

孟 陽\*\*

(단국대학교 박사수료)

### ◆ 국문초록

르페브르에게 있어 텍스트의 굴절은 TT사회문화시스템의 제약요인들에 의해 야기되는 ‘문화적 변용(acculturation)’으로, 문화를 개념화시킨 제약요인들은 서로 간 관계에서 그 범주와 내용이 모호하여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다. 번역규범의 측면에서 굴절에 대한 이해의 시도는 첫째, 르페브르와 규범 이론가들 모두 ‘번역이 TT문화권 내에서의 조작이다’라는 가설을 공유하면서 텍스트의 변용에 대한 목적뿐 아니라 원인 또한 동일시스템에서 찾고 있으며, 둘째 TT문화시스템에서 규범이 제약요인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하며, 마지막으로 규범과 텍스트 변용과의 상관관계가 르페브르의 제약요인과 굴절과의 관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아동문학을 분석 텍스트로 선택한 것은 아동문학 규범이 성인 문학에 비해 허용범위가 좁아 귀납적 연구를 통한 유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능적 측면에서 굴절의 제약요인을 ‘규범’으로서 이해하고, 이를 중국 아동문학인 『紅瓦』의 2종 한역본, 즉 성인 대상의 TT1과 청소년 대상의 TT2에 적용하여 아동문학의 굴절 양상을 비교·분석하였다. 아동·청소년 문학의 규범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귀납하여 규범의 내용을 1) 청소년 정서에 사회·교육적으로 적합한 가치의 제고, 2) 청소년 윤리와 도덕의 한국적 가치의 보존, 3) 청소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적합한 언어의 사용, 4) 이해력 제고와

\* 제1저자

\*\* 공동저자

용이한 전달이라는 4가지로 범주화한 후, 이를 제약요인으로 적용하여 TT2의 굴절 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향후 청소년 문학의 바람직한 번역 방향을 가늠해 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르페브르, 굴절, 청소년 문학, 번역규범, 이데올로기, 시학

## 1. 들어가며

이 글은 르페브르(André Lefevere)의 ‘굴절(refraction)’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굴절을 일으키는 요인(control factors, 이하 제약요인과 혼용)’을 ‘번역규범’과의 관계에서 이해하고, 이를 중국 아동문학인 『紅瓦』의 독자층이 다른 2종 한역본에 적용함으로써 성인 문학과는 다른 아동문학 번역텍스트의 굴절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sup>1)</sup>

주지의 사실이듯, 르페브르는 90년대 번역연구에서 ‘문화적 전환(cultural turn)’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끈 대표적인 학자이다. 이는 번역을 언어뿐 아니라 광의(廣義)의 문화라 할 수 있는 정치, 사회, 역사, 제도 등의 다양하고 거시적인 맥락과 배경에서 연구하고자 하는 시도로, 기존의 번역 연구가 주요하게 ‘출발어텍스트(Source Text, 이하 ST와 혼용)’와 ‘도착어텍스트(Target Text, 이하 TT와 혼용)’간의 언어

1) 『紅瓦』는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Hans Christian Andersen Award, HCAA)’을 수상한 중국 작가 차오원쉬엔(曹文軒)의 대표작이다. 문화대혁명이라는 불안한 시대적 배경하에서 중학생인 소년 소녀들의 사춘기 이야기를 통해 짝트는 우정과 사랑을 그리고 있다. 청소년들의 삶을 토속적 미학으로 그려냈다는 문학적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지적이 동시에 존재한다(王泉根 2016:60-61, 常立 2018). 한국에서는 『빨간 기와』, 『까만 기와』라는 제목으로 번역자 전수정에 의해 성인 대상(2001~2002/2005/2009)과 청소년 대상의 한역본(2013)이 새움과 푸른숲 주니어에서 각각 출판되었다. 2001년 중앙일보의 10대 우수 도서에 선정되고 성장소설의 모범사례로 고등학교 대안교과서인 ‘우리말 우리글’에 실린 바 있다(張乃禹 2019).

적 차이와 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문화적 전환에 이르러서는 ST와 TT가 각각의 언어·문화적 배경에서 가질 수 있는 의미와 기능에 관한 연구로 그 범주가 확장된다. 언어학 중심의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맥락, 특히 TT문화로 연구의 초점이 전환됐다는 점에서 번역에 대한 인식과 방법의 패러다임적 전환이라 하겠다.<sup>2)</sup>

문화번역자로서 르페브르의 번역에 대한 시각은 '굴절(refraction)' 개념에 잘 드러나 있다. 르페브르(1992a:14)는 '번역이 진공 상태가 아닌, 특정 시기와 특정 문화라는 제한된 배경에서 진행되기에, 그러한 문화에 대한 번역자의 이해 방식이 번역에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번역을 ST에 대한 단순한 '반영/반사(reflection)'가 아닌 '굴절'이라고 정의한다. 이는 빛이 한 매질에서 또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경계면에서 휘어져 보이는 (착시)현상인 '굴절'이라는 비유를 통해 ST 문화가 또 다른 TT 문화에 수용되어 '재(再)초점'되는 '조정' 과정을 설명한 것이다(Lefevre 1982:4, 하야카와 아쓰코 2017:69).

르페브르(1985:226-233, 1992b:14-15, 1998:48, 76)는 TT의 굴절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후원(patronage)', '이데올로기(ideology)', '시학(poetics)', '자연언어(natural language)', '담화세계(universe of discourse)' 등을 꼽고 있다. 이는 II장에서 살펴보겠지만 '굴절'된 텍스트를 '문화적 변용(acculturation)'이라고 할 때(Lefevre 1992a:26), 제약요인들은 텍스트에 영향을 끼치는 TT시스템의 문화를 개념화한 것이 된다. 따라서 문화

---

2) 문화적 전환은 거시적으로는 '해체와 재구성(deconstruction)'을 기반으로 하는 '포스트구조주의'의 지적 패러다임에 영향을 받았다. 포스트구조주의에 의해 근대 담론의 객관성과 보편성의 신화가 깨지면서, 그동안 번역연구에서 타자로 규정되었던 주체, 즉 TT문화/여성/피식민지 등이 개별 주체성을 드러내며 기존의 ST문화/남성/제국주의적(서구중심적)이라는 기존의 언어·문화적 권력 체계에 저항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문화적 전환 이래 번역 연구는 TT문화권의 영향에 집중하는 (협의의)문화번역(cultural translation)과 탈식민주의 번역(post-colonial translation), 페미니스트 번역 등이 성행하면서 연구의 초점도 저자와 원전 중심에서 번역본과 번역가, ST문화에서 TT문화, 그리고 여성을 포함한 다양한 주체에 집중하게 된다.

라는 개념이 가지는 모호성만큼 다양하게 해석될 여지가 많아 적용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이 글은 르페브르의 굴절의 제약요인을 기능적 측면에서 번역규범과의 관계를 통해 이해하고(II장), 아동·청소년 문학의 규범에 관한 기존의 경험적 연구를 토대로 규범의 내용을 4가지로 범주화한 후 이를 동일 번역자에 의한 ‘성인 대상의 번역본(이하 TT1)’과의 비교를 통해 『紅瓦』의 ‘청소년 대상 번역본(이하 TT2)’에 드러난 굴절 양상을 분석하도록 하겠다(III장). 그리고 결론(IV장)에서는 향후 청소년 문학의 바람직한 번역 방향에 대한 화두를 던져 보고자 한다.

한편 이글에서 ‘청소년 문학’은 ‘청소년을 독자로 하는 작품’으로 정의한다. 한국과 중국 모두 장르적으로 명확한 구분 없이 ‘아동·청소년 문학’으로 혼용하고 있으나,<sup>3)</sup> 분석의 대상과 규범의 적용이라는 측면에서는 ‘학동(學童)기 어린이’를 지칭하는 아동과 청소년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 아동문학은 아동·청소년 문학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구체적으로 대상을 좁혀야 하는 경우 ‘청소년 문학’으로 한정해서 쓰도록 하겠다.

---

3) 한국의 경우 1920년대 아동문학 장르가 정식으로 등장한 이래 그 하위 범주인 소년소설에서 청소년 문학이 독립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중국의 경우 장르로는 ‘아동문학(兒童文學)’이라는 대범주 하에 유년문학, 동년문학, 소년문학 등의 하위 범주를 구분하고 있다(王泉根 1986/ 2000:484-487). 이와 같이 한국과 중국 모두 청소년 문학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것은, ‘청소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가지는 모호성 때문이다. ‘청소년’이란 개념은 근대 이후의 신조어로, 그 이전까지 10대를 폭넓게 지칭하는 용어로 ‘소년’, ‘청년’, ‘아동’, ‘어린이’ 등이 혼용되어 쓰였다. 부연하자면,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체나 대상으로 아동을 굳이 세분화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1920년대 이래 일본에 의해 근대화 강제로 진행되면서 아동과 성인의 중간 단계로 반(半)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나이에 주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어린이와 같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지만, 동시에 일정한 사회적 책임을 담당할 수 있는 주체로 ‘청소년’이라는 개념이 분리되어 쓰이기 시작한다. 그 후 민족의 미래를 짊어질 주체로서 ‘학생(학생 청소년)’, 성인만큼은 아니지만, 일정한 노동을 담당할 수 있는 생산력 주체(노동 청소년), 그리고 90년대 들어서는 구매력을 가진 소비의 주체로도 청소년은 구분되기 시작하였다(김현철 1999, 오세란 2010 참조).

## II. 르페브르의 ‘굴절’과 번역규범

### 1. 르페브르의 ‘문학시스템’과 ‘굴절’의 제약요인

르페브르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학 시스템이 만나는 과정, 즉 두 개의 상이한 시스템이 교차하는 장(場)에서 ST가 TT 문학시스템의 스펙트럼을 통과하면서 번역이 이뤄진다고 가정하였다. 하나의 ‘사회’는 ‘상위(mega)시스템’으로, 그 하부에는 문학, 문화, 법률, 제도 등 다양한 ‘하위(sub)시스템이 존재한다.<sup>4)</sup> 이에 따라 ‘문학시스템’은 번역문학(translated literature)을 포함하여 대상으로서의 텍스트와 그 텍스트를 읽고, 쓰고, 또 번역(다시쓰기) 하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하위시스템이 된다(Even-Zohar 1990:51).

한편 하위시스템인 문학시스템에는 외적 환경이 되는 상위시스템인 사회문화시스템과의 상호 영향 하에서 시스템 간 조화를 유지하는 통제 메커니즘(control mechanism)이 작용하는데, 르페브르는 이로 인해 텍스트의 굴절이 야기된다고 보았다.<sup>5)</sup> 따라서 르페브르가 꼽은 텍스트의 굴절에 대한 제약요인들은 주요하게는 TT 사회문화를 추상화시켜 개념화한 것이 된다. 그렇다면 굴절의 제약요인’으로서의 ‘문화’는 어떠한 형태로 개념화되었는가?

80년대 초 르페브르는 문학시스템에 영향을 끼치는 TT시스템의 요인들을 설명하기 위해 ‘후원’ 개념을 도입하였고(Lefevere 1982:6), 그 후

4) 이때 ‘시스템’이란 ‘내적으로 관련이 있는 요인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상정하는 ‘이념형(ideal type)’으로, 동일한 시스템에 속하는 요인들은 다른 시스템에 속하는 요인과는 구분되는 공동의 특징을 공유한다(Lefevere 1992b:12-14).

5) ‘굴절’을 독자들의 작품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주는 개작 행위에 대한 통칭이라고 할 때, 편찬이나 편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할 수 있다. 다만 르페브르는 번역이 ST에 대한 일종의 재해석 행위로 굴절의 정도가 가장 심한 것으로 보았다. 결국 번역으로 외국 작품을 접하는 독자들은 ‘굴절된 텍스트’를 통해 작품을 이해하는 것이 된다(Lefevere 1982:4).

문학시스템 내·외적으로 ‘전문가(professional)’와 ‘후원자(patronage)’를 구분하고 전자(前者)에는 ‘시학’을, 후자(後者)에는 ‘이데올로기’를 각각 하위요소로 규정하였다(Lefevre 1985:226-228). 한편 90년대 들어 ‘다시쓰기’를 보다 부각시키면서, 이에 영향을 끼치는 문학시스템 내부의 제약요인으로 ‘이데올로기’, ‘시학’, ‘담화세계’, ‘(ST)자연언어’를 꼽았다(1992b:59, 73, 87, 99). 그 후 90년대 후반에 이르러 르페브르(1998:76, 1998:48)는 ‘시학’과 ‘이데올로기’에 보다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씨줄과 날줄이 엮이는 ‘격자 망(grid)’개념을 도입하여 시학을 ‘텍스트망(textual grid)’으로, 이데올로기를 ‘개념망(conceptual grid)’으로 보았다.

이는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르페브르가 제시한 ‘여러 요인’들은 TT사회문화를 개념화시킨 것으로 단순히 제약요인만을 의미하기보다는, 영향을 주는 주체와 영향을 받는 대상으로서의 객체, 그리고 직접적 영향요인으로서의 제약요인 등과 같이 보다 넓게 ‘구성요인’이라는 시각에서 읽어야 한다. 예를 들어, 80년대 르페브르는 굴절에 대해 전문가와 후원자를 구분하고 그 하위요인으로 각각 시학과 이데올로기를 상정하였다. 이는 모두 TT사회문화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인들로, 전문가와 후원자는 제약 주체, 제약 대상은 텍스트, 제약의 결과는 굴절된 텍스트, 그리고 시학과 이데올로기는 각각 그 주체를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굴절된 텍스트를 결과라고 할 때, 제약요인은 제약 주체인 전문가와 후원자가 될 수도 있고, 주체에 영향을 주는 시학과 이데올로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둘째, ‘굴절’과 ‘다시쓰기’의 관계이다. 굴절에 대한 르페브르의 생각은 80년대 중반 이래 ‘다시쓰기’로 확장된다. ‘굴절’이 ST에서 TT로의 과정, 즉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수용되면서 텍스트가 조정 혹은 조작되는 ‘현상’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시쓰기’는 굴절된 텍스트를 만들어 내는 주체로서의 번역자의 ‘행위’ 측면에 집중한다. 다시 말해, 르페브르에게 있어 TT는 ‘굴절된 현상으로서의 텍스트’이며, 동시에 번역자가

‘다시쓰기’한 결과로서의 텍스트가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약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90년대 ‘다시쓰기’에서는 번역자가 다시쓰기의 주체이자 제약을 받는 대상이 된다. 따라서 후원자와 전문가를 굳이 구분할 필요 없이, 번역자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후원자, 이데올로기, 시학, 담화를 분류하였다. 이는 또한 90년대 중반 이후 제약요인에 대한 시스템의 내·외적 구분이 모호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 제약대상이 번역자인 상황에서 TT시스템의 내외적 구분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ST의 자연언어가 추가되었다고 하겠다.

## 2. 굴절의 제약요인과 번역규범-‘이데올로기’와 ‘시학’을 중심으로

이데올로기와 시학은 굴절의 제약요인으로 르페브르에 의해 주요하게 꼽힐 뿐 아니라, 6) 다른 제약요인에 비해 범주화가 상대적으로 용이하기에 실제 분석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다.

우선, 이데올로기와 시학에 대한 르페브르의 정의를 살펴보겠다. 이데올로기에 대해 르페브르는 세 번에 걸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특정 시대 혹은 사회에 적용되는 세계관(Lefevre 1985:226)’에서 90년대 초에는 프레드릭 제임슨(Fredric Jameson)의 주장을 빌려 ‘정치적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행동을 규정하는 형식이나 관습 혹은 신념(Lefevre 1992b:16)’이라고 보았고, 이후에는 ‘독자와 번역자가 텍스트를 통해 접근하는 특정 시기, 특정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것으로 간주되는 의견과 태도로 구성된 개념망(Lefevre 1998:48)’이라고 규정하였다. 시학의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를 하였다. 하나는 문학적 장치나 장르, 모티브, 전형적 인물, 특징과 상황, 상징 등과 같은 문학작품의 구성요소가

---

6) 르페브르(1998:49, 1999:75)는 번역전략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이데올로기와 시학을 수 차례 강조하였고, 다시쓰기를 ‘문화자본의 재구축’으로 바라보는 90년대 말에도 이데올로기와 시학을 여전히 주요 제약요인으로 꼽고 있다.

고, 또 다른 하나는 특정 사회시스템에서 문학에 기대하는 역할이나 당위성과 같은 기능적 요소이다(Lefevre 1992b:26).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데올로기와 시학 역시 개념이나 서로 간 관계에서 다양하게 해석되어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시학을 문학의 역할이나 당위성에 대해 특정 사회가 기대하는, 그래서 번역텍스트의 선택이나 주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두 번째 정의에서 본다면, 이데올로기와 구분이 쉽지 않게 된다(하야카와 아쓰코 2017:71-72). 이데올로기 역시 ‘특정 문화에 속하는 개념, 이데올로기, 인물과 사물 등을 포함한 집합체(Lefevre 1992a:35)’라고 정의한 ‘담화세계’ 혹은 ‘특정 시기 자신의 문화권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대상이나 관습, 신념(Lefevre 1992b:87)’이라는 ‘대중담론’과의 구분이 모호하다. 무엇보다 번역자 개인의 종교적·사회적 신념인지, 당대의 주류적 관념인지 구분하기는 더욱 어렵다고 하겠다(도희진 2008).

이와 같은 모호성은 제약요인에 대한 해석이나 적용에서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이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에서 특히 두드러지는데, ‘대중담론(김가희·박윤희 2016)’, ‘당대 통용담론(장재일 2015:206)’과 혼용되어 읽히기도 하고, 그 내용도 ‘정치적 이데올로기(정정 2017, 이은정 2019, 김소정 2010)’, ‘왕정복고와 같은 특정 시기의 특정 이데올로기(박윤희 2021)’, 사회 깊이 무의식적으로 뿌리 내리고 있는 ‘가부장제나 유교이데올로기(강경이 2016)’에서부터 ST의 왜곡을 가져오는 ‘번역가 개인의 가치관이나 선입견(김가희·박윤희 2016)’, 혹은 개념이 더 확장된 ‘문화이데올로기(허예령 2018)’까지 상당히 넓게 적용되고 있다. 그 결과 제약요인에 대한 연구는 텍스트에 대한 분석을 귀납한 후 원인을 규명하는 방식이 주(主)를 이룰 수밖에 없는데(김혜림 2011, 정인영 2013), 신다영(2014:85)의 토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전히 상호 간 관련성을 구분하기가 모호한 실정이다.

이에 이 글은 번역규범이라는 측면에서 굴절의 제약요인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다. 이는 무엇보다 르페브르와 규범 이론가들



모두 '번역이 조작'이라는 가설을 공유하며, 시스템을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는 점에 근거하고 있다(Hermans 1985:11, Toury 1985:19). '번역이 조작'이라는 시각은 TT가 수용되는 문화에 의해 '변용(굴절)'된다는 것을 전제하며, 그러한 '변용을 일으키는 목적과 원인'을 TT문화의 시스템에서 찾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번역자의 행위 과정과 그 결과인 번역물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굴절의 제약요인과 규범은 기능적으로 공유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무엇이 적절한지에 대해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치나 개념(Toury 1995:55)', '법령이나 규칙과 같이 강제성은 없으나, 구성원 간의 일종의 약속으로 관습보다는 구속력이 강한 것(Hermans 2008:57)'이라는 규범에 대한 정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번역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번역의 '규범(norms)'은 르페브르의 제약요인과 기능적으로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sup>7)</sup>

이와 관련하여 번역규범에 관한 체스터만(1997:64-70)의 논의는 번역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범으로 전제하고 이를 외부 권위자의 '기대규범(expectancy norm)'과 그 기대에 부응하고자 하는 번역자의 '전문가 규범(professional norm)'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굴절의 제약요인에 대한 르페브르의 생각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기대규범'은 번역가에게 일정한 행위를 기대하는 외부의 제약으로 번역자는 '좋은 번역' 혹은 '적합한 번역'에 대해 TT사회문화 시스템이 기대하는 바를 만족시켜야 한다. '전문가 규범'은 번역과정에서 번역자의 행위를 제약하는 '번역자 규범'이다. 이는 다시 번역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윤리규범(accountability norm)'과 모든 참여자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소통규범(communication norm)', 그리고 ST-TT

7) 이 점에서 '좋은 번역이란 특정 시기와 사회의 지배적인 규범에 따라 번역하는 것'으로, '그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번역되었을 때 좋은 번역으로 보이는 것'이라는 허만스(2008:66)의 지적은 '후원'에 대한 르페브르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의미심장하다. '좋은 번역'을 추구하는 번역가는 외부의 평가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간 적절한 언어적 유사성 관계를 설정해야 한다는 ‘관계규범(relation norm)’으로 세분화된다.

규범과 텍스트 변용과의 상관관계는 르페브르의 제약요인과 굴절과의 관계에 비해 그 범위와 내용이 상대적으로 명확한데, 이는 규범의 주체와 역할, 그리고 순환 관계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체스터만(1997:66)은 특정 규범이 텍스트에 충실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주체로 ‘규범의 권위자 집단’을 꼽고 있는데, 이에는 비평가와 출판사, 아동문학의 경우 학부모, 교사, 사서 등이 포함된다. 무엇보다 규범의 권위자에 의해 특정 번역물이 관련 규범을 만족시켰을 때, 그러한 번역을 수행한 번역자 또한 그 집단에 수용된다(Chestherman 1997:67-69). 그리고 이와 같은 관계가 순환되면서 특정 장르에서는 특정 규범에 맞춘 번역이 주(主)를 이루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비슷한 장르에서 내용이 거의 유사한 번역규범이 드러난다고 본다.

물론 규범에 근거하여서도 르페브르의 제약요인들의 범주와 내용을 정확히 도식화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러나 규범의 내용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을 통해 제약요인의 내용을 유형화하고 이해할 수 있으며, 최소한 번역자 개인의 신념이나 가치관과의 구별은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이는 또한 이 글이 청소년 문학의 번역텍스트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근거이기도 하다. 다시 말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번역에서 TT사회문화 시스템에 의한 텍스트의 굴절이 더 심하다는 르페브르(1981:72)의 견해나, 아동·청소년 문학의 경우 TT중심 규범의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경험적 연구가 시사하듯이(Desmidt 2006:86, Purtnin 1998:525), 아동문학 번역의 경우 텍스트 변용의 폭이 큰 반면, 규범의 내용은 성인 문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좁아 귀납적 연구를 통한 유형화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 III. 아동문학 번역규범 적용을 통한 청소년 문학 번역텍스트의 굴절 양상 분석: 『紅瓦』 2종 한역본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 문학번역의 규범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통해 청소년 문학의 중한번역에 최소한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는 규범의 내용을 1) 청소년 정서에 사회·교육적으로 적합한 가치의 제고, 2) 청소년 윤리와 도덕의 한국적 가치 보존, 3) 청소년의 인지 및 언어발달에 적합한 언어의 사용, 4) 이해력 제고와 용이한 전달의 4가지로 범주화하였다.<sup>8)</sup> 분석의 편의상 1)과 2)는 텍스트에 대한 내용적 제약을 중심으로, 3)과 4)는 텍스트의 언어적 제약을 중심으로 보되, 3)은 어휘 위주로, 4)는 문장 구성 위주로 살펴보겠다.<sup>9)</sup>

#### 1. 청소년 정서에 사회·교육적으로 적합한 가치의 제고

이는 TT2에서 ‘선정성’과 ‘폭력성’, 비(非)교육적 내용에 대한 제약으로 드러났다. 주요하게는 성(性)적 표현, 비속어, 자살 암시, 생식기 표현 등이 TT1에 비해 과감하게 ‘생략’ 혹은 ‘축소’되고 있다(부록(1-1)~(1-6) 참조). 다음 사례를 보자.

(1)

ST: [...] 走了几步, 他扔掉了棍子, 往草丛里啐了一口, 裤带一松,

8) 규범의 내용 연구는 번역텍스트에 드러난 양상과 특징, 유형, 번역전략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원인을 역추적하는 귀납적 방법이 주를 이루며(신지선 2005, 성승은 2010, 이영구·강소라 2014), 권장도서목록이나, 도서 심의제도, 출판사 등 영향력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아동문학의 지배적 규범의 내용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다(강경이 2015, 성초림 2013).

9) 이를 굳이 르페브르의 제약요인과 거칠게 등치시켜 보자면 1)과 2)는 외부의 후원자가 기대하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3)과 4)는 번역가가 고려하는(혹은 번역자에게 기대하는) 아동문학 장르의 시학적 요인이라 볼 수도 있다.

裤子便如断了线的幕布坠落了下来，露出他黑黄色的下体来。  
他的屁股像两瓣驴肺分开着。他将双手伸到前面去，轻轻地扶着它，往草丛里撒尿。那泡尿很长，长如黑夜，草丛里发出“稀溜稀溜”的声响。不一会儿，草丛里就出来一堆泡沫，像田埂边正在繁殖期的黄鳝往洞口吐出的水沫。他掉头看了我一眼。我觉得他一脸邪恶。他用手有节奏地摇着它，欲摇清那些残余。  
 (470)

TT1: [...] 몇 걸음 가더니 그는 몽둥이를 버리고 숲 속을 향해 가래침을 탁 뱉은 후 허리띠를 풀었다. 그러자 끈 끊어진 장막이 내려가듯 바지가 죽 내려가면서 누르스름한 하체가 드러났다. 그의 엉덩이는 당나귀의 폐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것 같았다. 그는 두 손을 앞으로 가져가 가볍게 그 물건을 잡고 풀밭에 오줌을 누었다. 오줌줄기는 그날의 밤만큼이나 길게 수풀 속으로 떨어지며 줄줄줄 소리를 냈다. 잠시 후 수풀 속에는, 논두렁에서 한창 번식기에 접어든 두렁허리가 구멍 입구에 내뿜어 놓은 듯한 거품이 생겼다. 그는 고개를 휙 돌려 내 쪽을 힐끗 쳐다봤다. 사악하기 그지없는 표정이었다. 그는 손으로 물건을 잡고 리듬감 있게 흔들며 그 순간의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았다. (40-41)

TT2: [...] 몇 걸음 가더니 차오안이 몽둥이를 버리고 숲 속을 향해 가래침을 탁 뱉은 후 허리띠를 풀었다. 그러자 바지가 죽 내려가면서 누르스름한 하체가 드러났다. (∅) 차오안이 풀밭에 오줌을 누었다. 오줌 줄기는 수풀 속으로 떨어지며 줄줄줄 소리를 냈다. 잠시 후 수풀 속에 하얀 거품이 생겼다. (∅) 그가 고개를 휙 돌려 내 쪽을 힐끗 바라다보았다. 사악하기 그지없는 표정이었다. 그는 리듬감 있게 몸을 흔들며 그 순간의 여유를 즐기는 것 같았다. (251-252)

(2)

ST: 八蛋并不小了。八蛋已经知道在镇上嫖婆娘了。(106)

TT1: 빠판은 이미 시내의 술집 작부와 놀이날 정도로 조숙했다. (178)

TT2: (∅) (146)

(3)

**ST:** [...] 只见他将兔子高高举起, 重重地 攢在了河坎上。那只野兔“吱哇”一声惨叫, 躺在河坎上, 蹬着两条后腿。乔桉抹了抹脸上的水, 盯着那只垂死挣扎的野兔。野兔挣扎了几下, 居然又爬起来, 踉踉跄跄地沿着河坎跑去(严格来说, 是爬去)。乔桉一步一步地跟着, 却不立即去捉住它, 直到他认为没有必要再进行这场游戏了, 才紧追几步, 将它捉住。他提着它走到水边, 然后将它摞到水中。随即, 水面上泛起两串细小的水泡。等水面上终于不再有水泡后, 他才将野兔拎出水面。他提着野兔, 浑身湿漉漉地站在对岸, 站在我们全体的对面, 朝我们瞧着。河这边, 鸦雀无声。(16)

**TT1:** [...] 그 순간 우리는 차오안이 토끼를 높이 치켜올려 강둑에 있는 힘껏 내려찍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토끼는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뒷다리를 뻗은 채 강둑에 나뒹굴었다. 차오안은 얼굴에 묻은 물을 흠쳐내고는 축 늘어진 토끼를 노려보았다. 토끼는 몇 번 몸서리를 치더니 뜻밖에도 비틀비틀 일어서서 강둑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엄격히 말하자면 기어갔다). 차오안은 토끼를 잡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토끼를 따라 걸었다. 그리고는 더 이상 이 놀이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순간 비로소 걸음을 재촉해 토끼를 잡았다. 차오안은 토끼를 들고 강가로 가더니 토끼를 물 속에 넣고 지그시 놀렸다. 그러자 수면 위로 두 줄기 가늘고 작은 물거품이 떠올라왔다. 이윽고 수면 위에서 물거품이 사라지자 토끼를 서서히 물 위로 꺼냈다. 차오안은 토끼를 거머쥔 채, 온몸이 젖은 채로 건너편에 서 있는 우리를 노려봤다. 강 이쪽 편은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다.(35)

**TT2:** TT1과 동일 (26)

ST를 기준으로 볼 때, 사례(1)~(3)은 차오안과 빠판이라는 인물에 대한 형상화이다. 주인공과 또래인 두 사람 모두 기존 질서에 억눌려 있던 인물로 문화대혁명을 기점으로 맹목성에서 나오는 잔인성이 표출된다.

예를 들어, 빠판은 문화대혁명에 앞장섰던 치기 어린 소년의 상징 같은 인물이다. 일찍부터 여자 경험이 있을 정도로 세상 물정에 빠삭하나 배움에 대한 자격지심이 상당하다. 빠단의 인물 형상화를 위한 서술과 묘사는 ST의 다양한 부분에서 드러나면서 문화대혁명 당시 도를 넘는 행동에 대해 설득력 있는 배경을 제시하지만, 사례(2)와 같은 성적 표현과 관련해서는 TT2에서 대부분 생략되고 있다. 또한 사례(1)과 같이 성기(高 추/小鸡)에 관한 직·간접적인 표현들 역시 대부분 축소 혹은 생략되어 있다.

반면 운동장에 우연히 뛰어 들어온 토끼를 ‘놀이(游戏)’ 삼아 몰다가 영금영금 기어 도망갈 정도가 되어서야 물속에 넣고 익사시키는 차오안의 행동(‘지그시 놀렸다’)이나, 토기가 죽는 과정(‘수면 위로 두 줄기 가늘고 작은 물거품이 떠올랐다’) 등과 같이, 보는 이에 따라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은 TT1과 동일하게 번역되어 있다. 청소년 정서에 대한 비(非)교육적 내용에 대한 제약이 내용이나 수위보다는 형식에 준(準)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 2. 청소년 윤리와 도덕의 한국적 가치 보존

아동문학의 한국어 번역에서 특징적으로 드러나는 규범으로, 분석 결과 TT2에서는 ‘연장자에 대한 존경’에 대한 제약으로 확인되었다. 사례(1)과 (2)의 TT2는 TT1과 달리 ‘교장선생님/선생님’과 같은 호칭의 존칭을 추가하였고, 사례(3)의 선생님에 대한 뒷담화는 그 내용이 별명과 험담 정도로 수위가 높지 않다고 보여짐에도 TT2에서는 전부 생략하고 있다.

(1)

ST: 我随白麻子走到水码头。在他不停地用手捧起河水洗脸时, 我既像个大人, 又像个领导, 对他说道: “王儒安的小屋太破了, 该

修一修。该换一个人代他清理厕所。” (53)

**TT1:** 나는 백곰보를 따라 냇가로 걸어갔다. 백곰보는 강물을 퍼서 쉬지 않고 얼굴을 씻는 동안 난 마치 어른처럼, 그리고 그의 상전이나 되는 것처럼 그를 향해 말했다. “**왕유안**이 사는 움막집이 너무 낡았어요. 수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청소는 다른 사람을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95)

**TT2:** 나는 백곰보를 따라 냇가로 걸어갔다. 백곰보는 강물을 퍼서 얼굴을 씻었다. 나는 어른 흉내를 내며 말했다. “**왕루안 교장 선생님**이 사는 움막집이 너무 낡았어요. 수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화장실 관리는 앞으로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겠어요.” (78)

(2)

**ST:** [...] 他回头看到自己身后有不少人站在台阶下, 便很气粗地走到邵其平跟前, 说: “我们要求早点选举班干部!” (12)

**TT1:** [...] 그는 얼굴을 돌려 우리가 계단 밑에서 있는 것을 확인하고는 기세 좋게 **소기평**의 면전이다 소리쳤다. “우리는 하루 빨리 반장 선거를 하고 싶은데요!” (29)

**TT2:** [...] 그는 우리를 계단 쪽에 세워 두고는 기세 좋게 **사오지평 선생님**에게 소리쳤다. “**선생님**, 하루빨리 반장 선거를 하고 싶은데요!” (20)

(3)

**ST:** 我们都无心看书学习, 几个人挤一块瞎聊天。马水清挖苦我们的数学老师: “**江蛮子**, 性子太慢, 有一回他穿在身上的棉袄被火烧着了, 他不去扑火, 却慢条斯理地问: ‘啧啧, 这火是从哪儿来的呢?’”

姚三船牙缺了一角, 像害臊的女孩用手遮在嘴上说话: “我读小学时, 语文老师叫**杨大痴子**, 兄弟合住一幢屋子, 两人处得不好, 他拿了一把锯子爬上屋, 把七根檩条拦腰锯断了, 说这是老子留下的屋, 有他一半。”

刘汉林才把他的小学校长贬了一半, 谢百三神色慌张地跑进来,  
“你们快跟我来, 那个团长欺负秋!” (71)

**TT1:** 우리는 더 이상 책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모여 앉아 수다를 떨었다. 마수청은 애꿎은 수학선생을 들먹였  
다. “강 끈대 말이야. 정말 느러터졌어. 전에 한번은 강 끈대  
옷에 붙이 붙었는데 볼 끝 생각은 하지도 않고 느릿느릿 이런,  
볼이 어디서 날아 온 거람? 이리저 뭐야.”

요삼선이 부끄럼 타는 소녀처럼 떨어져 나간 이빨을 가리기  
위해 손을 입에 갖다대며 말했다. “초등학교 때 작문을 가르치  
던 멍텅구리 양이라는 선생이 있었는데, 그 선생 형제는 한 방  
에서 같이 살았거든. 그런데 둘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어느  
날 그 멍텅구리 양이 톱을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가 들보 일곱  
개 중에서 가운데부터 자르며 이렇게 말했다지 뭐야. 이 집은  
아버지가 우리 둘에게 준 것이니까 반은 내 꺼야.

유한림도 초등학교 때 교장을 헐뜯기 시작했는데,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서백삼이 허둥지둥 뛰어들어오며 소리쳤다.  
“너희들 빨리 날 따라와. 그 단장이 가을이를 희롱하고 있어.”  
(124)

**TT2:** [...] 하지만 자리에 앉아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아 끼리끼리  
모여서 수다를 떨었다. (∅) 그때 세바이싼이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며 소리쳤다. “빨리 나와 봐! 단장이 가을이를 괴롭히고  
있어.” (101)

이는 특히 ‘연장자’와의 관계에서 중요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래 (4)와 같이 할아버지와 대화에서의 비속어(活该, 狗  
屁的)는 수위를 낮추거나 생략하였지만, (5)의 또래 학생들 간의 비속어  
(‘小屁孩子’)는 높은 수위(‘쫄만한 새끼’)로 번역되고 있다.

(4)

**ST:** 马水清对爷爷发作起来, “活该!”

他弯腰捡起地上的肉, 跑到门口, 像掷铅球一样, 将它掷进雨地



里, “吃肉吃肉, 谁要吃这狗屁的肉!” (97-98)

TT1: 마수청은 발작하듯 할아버지를 향해 **“그래, 싸지! 싸!”**하며 허리를 굽혀 바닥에 있는 고기를 주워서는 문까지 뛰어가 비 내리는 거리를 향해 투포환하듯 내던졌다. 그리고 소리쳤다. “고기라고? 누가 **이 제기랄 고기** 먹자고 했어!” (165)

TT2: 마수이칭이 갑자기 발작하듯 할아버지에게 소리쳤다. **“그래, 다 쳐도 싸! 싸다고!”** 그러고는 바닥에 있는 고기를 주워 비 내리는 거리로 휙 던졌다. “누가 **(∅)** 고기 먹자고 했어!” (134-135)

(5)

ST: 我仿佛从乔桉嘴角轻微的一收之中, 听出了他心里的一句话——**“一个小屁孩子!”** (8)

TT1: [...] 난 차오안의 입가에 흐르는 희미한 미소를 보는 순간 그가 마음속으로 외치는 한마디 욕이 들리는 듯했다. **‘ 좇만한 새끼.’** (23)

TT2: [...] 차오안의 입가에 흐르는 미소를 보는 순간, 그가 마음속으로 뭐라 중얼대는지 알 것 같았다. **‘ 좇만 한 새끼.’** (15)

### 3. 청소년 언어발달에 적합한 언어의 사용

이는 TT2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어휘’에 대한 제약으로 드러났는데, 주요하게 의성어와 의태어 혹은 순우리말의 사용, 생동감 있는 표현 등으로 나타났다.

(1)

ST: 门都敞着, 我朝其中一间探了探头, 走了进去。 (4)

TT1: [...] 기숙사 **문은 모두 열려 있었고**, 나는 그 중 한 곳으로 머리를 들이밀며 들어섰다. (16)

TT2: 기숙사의 **방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었다**. 나는 그중 한 방으로 머리를 쭉 들이밀었다. (9)

위 사례(1)의 TT2를 보면 ‘문이 활짝활짝 열려 있었다(门都敞着)’와 같이 ST에 없는 의태어가 추가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성인 대상의 TT1과 비교하면 더욱 두드러진다. 다음은 유사한 사례이다.

발걸음을 떼었다(16) → **성큼성큼** 걸어갔다(9)  
(∅) (헤엄쳐 가)(34) → **빠르게** (헤엄쳐 가더니)(25)  
거의 잊은 듯(40) → **까맣게** 잊어버린 듯(30)  
차오안은 일을 아주 잘했다(44)→ 차오안은 일을 **척척** 잘해냈다(34)

이와 유사하게 사례(2)와 사례(3)의 TT2는 TT1에 비해 생동감 있는 표현으로 바꾸거나(‘땀투성→땀줄줄’), ‘공무니’와 같은 어휘를 추가하고 있다.

(2)

**ST:** 选举的结果是马水清所期望的: 汗淋淋的谢百三当了班长。后来, 从初中到高中, 谢百三当了五年多班长(高三上学期, 他辍学离校), 就是靠那副一年四季都“汗淋淋的”形象。(14)

**TT1:** 선거 결과 또한 마수청이 예상한 대로였다. **땀투성이** 서백삼이 반장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서백삼은 5년 넘게 사계절 내내 **땀투성**이라는 이미지에 기대어 반장(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그는 학교를 그만두고 떠났다) 자리를 맡았다. (31-32)

**TT2:** 선거 결과는 마수이칭의 말대로 되었다. ‘**땀 줄줄**’ 세바이싼이 반장으로 당선되었다. 그 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세바이싼은 오 년 넘게(고등학교 3학년 1학기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땀 줄줄**’이라는 이미지에 기대어 반장 자리를 맡았다. (23)

(3)

**ST:** 跟着父亲, 我走到了油麻地中学的大门下。(3)

**TT1:** 나는 **아버지를 따라** 유마지 중학교의 정문 앞에 다다랐다. (15)

**TT2:** 나는 아버지 꿈무늬를 따라 유마디 중학교 교문 앞에 다다랐다. (8)

특기할 만한 것은 한자어(일부는 영어)가 많이 사용된 TT1과 달리 TT2에서는 순우리말로로의 전환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TT2 전체에 걸쳐 특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다(사례(4)와 (5) 참조).

(4)

**ST:** 乔桉藐视一切。 (8)

**TT1:** 차오안은 일체를 무시했다. (23)

**TT2:** 차오안은 이 모든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했다.(15)

(5) 한자어(일부 영어) → 순우리말

고독해 보였다(33) → 외로워 보였다(24)

잔인한 사건(34) → 간담을 서늘하게 한 사건(25)

물의 파문만 남았다(34) → 물결이 일렁였다(25)

유유자적하며 지냈다(40) → 즐겁게 지냈다(30)

배상하다(41) → 물어주다(31)

백양목(41) → 백양나무(32)

조를 편성해 주었는데(42) → 조를 짜 주었는데(33)

걷는 폼이(43) → 모양새가(34)

야생화(47) → 들꽃(37)

이실직고할 수밖에 없었다(48) →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없었다(37)

사람들의 박장대소를 자아냈다(48) → 웃음거리가 되었다(38)

굶주림으로 모두가 결신들린 것 같았다(49) → 굶는 일이 많았다(39)

#### 4. 이해력 제고와 응이한 전달

이는 TT2에서 문장과 단락, 그리고 화법에서의 ‘전달 방식’에 대한 제약으로 확인되었는데, 주요하게는 구(句)의 추가나 단락과 문장의 개

조, 화법의 전환, 그리고 줄거리 외(外) 부분의 축소와 생략으로 드러나고 있다. 단락은 TT2 전체에서 TT1에 비해 세부적으로 구분되고 있으며, 이해를 위해 추가하는 내용(부록(4-1)과 (4-2) 역자 주)보다 유사한 내용의 축소와 과감한 생략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TT2의 전체 분량이 TT1에 비해 축소되는 주요 원인으로 보여진다.

우선, 문장과 단락의 개조이다. 아래 사례 (1)을 보면 TT1은 ST와 단락과 문장의 배치가 거의 유사하나, TT2에서는 내용상 단락을 두 개로 구분하면서, 핵심 내용의 문장(①‘但我对马水清倒并无反感’)이 첫 번째 단락의 말미로 자리를 옮기고 있다. 그 결과 내용이 요약되어 TT2가 TT1에 비해 이해가 용이해지는 효과를 내고 있다.

(1)

**ST:** ①但我对马水清倒并无反感。 因为马水清可以支使天下人，却惟独不支使我。不公不支使我，还让我分享他的支使他人的那种天赋权利。我这人从小就有好人缘，后来的岁月告诉我：天下人不能做我朋友的，实在太少。(9-10)

**TT1:** [...]①그런데 이상한 것은 내가 마수청에 대해서만큼은 어떠한 반감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것은 마수청이 누구를 막론하고 지시를 하고 있으면서도 내게만은 그러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 단지 그뿐만 아니라 그는 나를 자신의 고유한 지시권 안에 두고서 권력의 맛을 함께 향유하게 했던 것이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인복이 많았는데, 훗날 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게 호감을 가지고 있으며 나와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을 알았다. (25)

**TT2:** [...] 마수이청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시를 해 댔는데, 웬일인지 나에게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나를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두고는 권력의 맛을 함께 누리게 해 주었다. ①그래서 그런지 나는 마수이청에게만큼은 어떠한 반감도 느끼지 않았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인복이 많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에게 호감을 가졌으며,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친구가 되었다. (17)

두 번째, 화법의 전환이다. TT2에서는 TT1과 달리 ST의 일부 내용을 직접화법으로 바꾸고 있는데(사례(2) 참조), 이와 같은 화법의 전환은 TT2에서 자주 발견된다.

(2)

**ST:** 我明白， 父亲是指小学校的老师与学生们给我起的外号“公丫头”。 他不将我一直送进去，还提这个诨名，这使我很恼羞，便放快了步子往前走。 (4)

**TT1:** 아버지의 그 말은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과 친구들이 내게 붙여준 ‘새색시’라는 별명을 의미하는 것임을 물론 난 잘 알고 있었다. 나를 끝까지 바래다주시는컸녕 내 불명예스러운 별명까지 끄집어 내 날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 아버지를 남겨두고 난 혼자 학교를 향해 발걸음을 떼었다. (16)

**TT2:** 초등학교 때 선생님과 친구들이 내게 붙여 준 ‘새색시’라는 별명을 두고 하는 말이었다. 치, 끝까지 바래다주시지도 않았면서 그 불명예스러운 별명은 왜 들먹거리는 거야? 나는 창피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해서 학교 안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8-9)

마지막으로 역주와 소재목의 사례이다. 역주의 경우 총량적으로는 TT2(54개)가 TT1(39개)에 비해 많았지만, 내용은 짧은 경향을 보였다. 다시 말해, 내용의 이해를 위해 TT2에서 역주의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동일한 내용에 대해 간결하고 압축적인 형태를 취함으로써 방식에서는 용이한 전달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부록(4-2) 참조). 이는 역주의 위치를 문장 가운데 삽입한 TT1과 달리, TT2에서는 중심 내용의 전개와 분리하여 페이지 하단 위치시키고 있다는 점, 중심

내용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작가 개인의 감상이나 소회는 과감히 생략하고 있다는 점(부록(4-3) 참조) 등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소재목의 경우 개조에 가까운 변형이 용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부록(4-4)), 각 장(章)의 내용을 압축하여 도착어에서 익숙한 표현으로 소재목을 개조함으로써 역시 전달의 이해를 높이고 있다고 하겠다.

#### IV. 글을 맺으며

번역규범으로서의 제약은 청소년 문학은 ‘응당 ~해야 한다’를 전제로 한다. 그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할 때 보다 윤리적이고 교육적이며, 재미있게 흥미를 유발시켜야 할 뿐 아니라 청소년 발달에 적합한 언어와 문장을 사용해야 하며, 동시에 쉽게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텍스트에 대한 이와 같은 제약은 청소년 문학에 대한 장르의 형식과 내용을 규정하고 그러한 규범에 맞는 다시쓰기를 하는 번역자를 규범의 권위자에 수용함으로써 장르의 형식과 내용을 유사하게 유도·고착시킨다.

이 점에서 텍스트의 굴절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번역자는 TT 문학 시스템에서 번역이 가지는 역할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지의 사실이듯, 혁신적인 글쓰기를 하는 작가들이나 새로운 문학 장르와 개념, 기법 등이 번역을 통해 소개되면서 TT문학시스템에 ‘충격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Bassnett 2011:32-35). 이는 번역이 가질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다. 그러나 청소년 문학의 뉴리얼리즘 번역에 대한 박효진(2021)의 평가에서 알 수 있듯이, 굴절된 번역텍스트는 오히려 TT문학시스템의 혁신을 억압하고 왜곡하거나 심지어 억누를 수도 있다(Lefevere 1992b:vii). 이는 제약요인에 의해 텍스트가 지나치게 굴절되어 ST가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나 생경함을 살리지 못할 때 발생할 수 있는데, 아동문학과 같이 규범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장르에

서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紅瓦』의 2종 한역본에 대한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아동문학에서 작용하는 규범이 텍스트의 제약요인으로서 TT2에 거의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TT1에 비해 텍스트의 굴절을 더 크게 야기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무엇보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 혹은 비(非)교육적이라고 판단되는 내용이 그 수위보다는 어떤 분야에 대한 것이냐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성적 표현 혹은 비속어와의 관계로 인해 토속적·향토적이라 평가받는 저자의 언어유희적 표현들이 아예 지워진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지나친 단락의 개조와 삭제로 인해 분량이 1/3 넘게 축소된 것이 ‘과연 책을 읽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독서에 대한 의문이 들게 한다.

이 점에서 과도한 굴절로 인해 청소년에게 읽기의 즐거움을 익힐 기회나 더 나아가 세상을 정확히 인식할 기회를 앗아갈 수 있다는 지적은 속고해 볼 만하다(Ottinen 2000:48-51). 아울러 시대적 약속으로서의 ‘규범’이 제약으로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시대의 발전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역동적인 개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시 말해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언어적으로 발달단계에 있는 비(非)성인을 대상으로 한 아동문학에 규범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는 공감하나, 그러한 범위가 과연 어느 정도인가에 대해서는 연령에 따라 세부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번역자의 역할과 의무가 아동문학의 번역에서 더 크게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다.

## Ⅰ 참고문헌

- 강경이(2015), 「외국 아동·청소년문학 한국어 출판번역에서의 교육적 기대규범」, 『번역학연구』 16:5, 한국번역학회, 7-37.
- 강경이(2016), 「한국사회의 유교적 이데올로기에 따른 중국 아동문학 번역에서의 텍스트 조정 양상 - ‘장유유서(長幼有序)’ 사상을 중심으로」, 『통역과 번역』 18:1, 한국통역번역학회, 1-26.
- 김가희·박윤희(2016), 「르페브르의 문학번역 제약 고찰 및 적용 - 문학 번역 텍스트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인문과학연구논총』 37:2, 명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15-236.
- 김소정(2010), 「번역과 굴절 - <영클톰즈캐빈(Uncle Tom's Cabin)>의 중국적 재구성」, 『中語中文學』 46, 한국중어중문학회, 131-154.
- 김현철(1999), 「일제기 청소년 문제에 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혜림(2011), 「중한 출판번역에서 나타난 다시쓰기 형태」, 『번역학연구』 12:2, 한국번역학회, 53-73.
- 도희진(2008), 「중한 번역의 이데올로기 조정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9:3 한국번역학회, 27-45.
- 박윤희(2021), 「André Lefèvre의 Rewriting 이론과 Dryden의 Troilus and Cressida 다시쓰기」, 『철학사상문화』 36,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44-262.
- 박효진(2021), 「‘다시쓰기’ 작가로서의 번역가에 대한 재고 : S. E. 힌튼의 아웃사이더를 중심으로」, 『통번역교육연구』 19:1, 한국통번역교육학회, 163-183.
- 常立(2018.7.28.), 「为什麼我不希望我的孩子读曹文轩?」, 『新京报·书评周刊』, <https://mp.weixin.qq.com/s/Z25vhg7WNSfVJSibUtvA> (검색일: 2022.01.11.)
- 성승은(2010), 「영한 아동문학 번역의 특성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의



국어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성초림(2013), 「문학권력과 번역」, 『번역학연구』 14:5, 한국번역학회, 143-167.

신다영(2014), 「중한 문학 번역의 다시쓰기 사례 연구: 선충원의 『边城』 번역본 분석」, 『T&I review』 4,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73-92.

신지선(2005), 「아동문학 영한번역의 ‘규범’ 연구」, 세종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오세란(2010), 「청소년소설의 장르 용어 고찰」, 『아동청소년문학연구』 6,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149-176.

王泉根(1986), 「论少年儿童年龄特征的差异性与多层次的儿童文学分类」, 『浙江师范大学学报』, 王泉根(2000)에 재수록됨, 481-502.

王泉根(2000), 『现代中国儿童文学主潮』, 重庆: 重庆出版社.

王泉根(2016), 「曹文轩模式”与中西儿童文学的两种形态」, 『中国现代文学研究丛刊』 9, 中国现代文学馆, 56-64.

이영구·강소라(2014), 「스코포스 이론의 관점에서 본 중국 창작 동화의 번역 전략 고찰」, 『中國語文論譯叢刊』 35, 중국어문논역학회, 231-262.

이은정(2019), 「북한 문학번역과 수용의 프레이밍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张乃禹(2019), 「『红瓦』走红的奥秘:曹文轩作品在韩国的传播与接受」, 『小说评论』 5, 陕西省作家协会, 112-121.

장재일(2015), 「반영과 굴절의 경계 : 『술라』(Sula)의 영한번역 비교연구」, 『영어권문화연구』 8:3, 동국대학교 영어권문화연구소, 203-230.

정인영(2013), 「村上春樹 소설의 영어 번역본 연구 - 한국어 번역본과의 비교를 통한 ‘다시쓰기’의 관점에서 -」, 『일본언어문화』 25,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649-670.

정정(2017), 「중국의 한반도 문학 번역에서 이데올로기에 의한 다시쓰

기 연구: 1949년~2000년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曹文軒(2002), 『紅瓦』(再版), 北京: 作家出版社.

테오 허만스(1996), 「규범 그리고 번역의 결정: 이론적인 틀」, Alvarez, Roman & M. Carmen Africa Vidal 엮음, 윤일환 옮김(2008), 『번역, 권력, 전복』, 동인, 45-84.

하야카와 아쓰코 지음, 김성환·하시모토 지호 옮김(2017), 『번역이란 무엇인가』, 현암사.

허예령(2018), 「다시쓰기 이론으로 본 김애란 장·단편 소설 한중 번역 연구」, 『중한언어문화연구』 14, 천진사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중심, 279-291.

Bassnett, Susan & Lefevere, André(1998), *Constructing Cultures: Essays on Literary Translation*, Clevedon: Multilingual Matters.

Bassnett, Susan(2011), *Reflections on Translation*, Bristol: Multilingual Matters.

Chesterman, Andrew(1997), *Memes of translation. The spread of ideas in translation theory*,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Desmidt, Isabelle(2006), “A prototypical approach within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Colliding norms in translated children's literature,” *Children's literature in translation: challenges and strategies*, eds. by Jan Van Coillie & Walter P. Verschueren, Manchester: St. Jerome, 79-96.

Even-Zohar, Itamar(1990), “The Position of Translated Literature within the Literary Polysystem,” *Poetics Today* 11:1, 45-51.

Hermans, Theo(1985),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London: Croom Helm.

Lefevere, André(1981), “Translated Literature: Towards an Integrated Theory,” *The Bulletin of the Midwest Modern Language Association*

14:1, 68-78.

Lefevere, André(1982), "Mother Courage's Cucumbers: Text, System and Refraction in a Theory of Literature," *Modern Language Studies* 12:4, 3-20.

Lefevere, André(1985), "Why waste our time on rewrites? The Trouble with Interpretation and the Role of Rewriting in an Alternative Paradigm,"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Studies in Literary Translation*, ed. by Hermans, Theo, London: Croo Helm, 215-243.

Lefevere, André(1992a), *Translation, History, Culture: A Sourcebook*, London: Routledge.

Lefevere, André(1992b), *Translation, Rewriting and the Manipulation of Literary Fame*, London: Routledge.

Lefevere, André(1999), "Composing the Other," *Post-colonial Translation: Theory and Practice*, eds. by Susan Bassnett & Harish Trivedi,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75-94.

Oittinen, Riitta(2000), *Translating For Children*, New York and London: Garland.

Puurtinen, Tiina(1998), "Syntax, Readability and Ideology in Children's Literature," *Translator's Journal* 43:4, 524-533.

Toury, Gideon(1985), "A Rationale for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The Manipulation of Literature*, ed. by Hermans, Theo, London: Croo Helm, 16-41.

Toury, Gideon(1995), *Descriptive Translation Studies - and beyond*,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분석텍스트

차오윈쉬엔 지음, 전수정 옮김(2001), 『빨간 기와(1, 2)』, 새움.

차오윈쉬엔 지음, 전수정 옮김(2002), 『까만 기와(1, 2)』, 새움.

차오원쉬엔 지음, 전수정 옮김(2005), 『까만 기와(1, 2, 3)』, 새움.  
차오원쉬엔 지음, 전수정 옮김(2009), 『까만 기와(개정판)』, 새움.  
차오원쉬엔 지음, 전수정 옮김(2009), 『빨간 기와(개정판)』, 새움.  
차오원쉬엔 지음, 전수정 옮김(2013), 『까만 기와』, 푸른숲주니어.  
차오원쉬엔 지음, 전수정 옮김(2013), 『빨간 기와』, 푸른숲주니어.

## I 부록

### (1-1) 어른의 성행위에 대한 묘사

**ST:** 阁楼上开有一个很大的天窗，这天的天气又异常晴朗，室内一片光明，一个男人和一个女人在我未看清楚他们是谁时，我只觉得，床上的那一个，是一团耀眼的白色，很像一只大大的面粉袋子，而站着的那一个却是棕黑色，像油麻地中学办公室门前的那棵完全落了叶子而裸露着枝干的棕搁树。他们的姿势很可笑。他们组成了一幅图画。这幅图画使人联想到在油麻地镇上总能见到的那个卖泥壶的老头，用力地推着那辆独轮车。床在撞击下摇晃，发出“咯吱咯吱”的声响。

我瞧见了床上傅绍全的母亲于乱发中闪现出的眼睛。那眼睛似乎只有眼白，但又分明是有神情的，那神情怪怪的，像个托钵要饭的人仁立在人家门口乞食时的目光。

霍长仁忽然凶起来。那凶样子，突然使我害怕了——我在黑暗里忽地联想到了那个夜晚他挥舞大刀砍人脑袋的形象。他喘息着，并在嘴里骂骂咧咧，骂得很难听，完全不像他平时衣冠不整洁的样子。我想立即走开去。可又十分害怕这时弄出声响来。我感到胸口发闷，特别想张大了嘴喘息。就在我欲要用脚试着往后退时，我听见了一种沉闷的声音。随着这声音，傅绍全的母亲深深地叹息了一声。那声音如同从深不见底的渊底发出的。霍长仁在离开床上的肉体时，我听到了一声清脆的声音，这声音很像是从一只空玻璃瓶的瓶口一下子拔出软木塞时的声音。霍长仁大汗淋漓，在天窗里投进的阳光下站着。黝黑色的皮肤上汗光闪闪。

我在他的腿间，仿佛看到了一个雨后老树根下冒出的黑色的很大的蓬头毒蘑菇，很丑陋，很愚蠢，又很滑稽。

他丢下了傅绍全的母亲，像干庄稼活的人总要在田埂上坐一坐那样，坐到了一张椅子上，张着腿，竟点起一支烟来抽。傅绍全母亲的双腿完全无力地垂挂在床边，仿佛永远不会再站立起来。(193-194)

**TT1:** [...]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다. 침대 위에 누워 있는 사람은 흡사 밝게 빛나고 있는 흰 밀가루 자루 같아 보였고, 서 있는 사람은 마치 유마지 중학교 사무실 앞에 있는, 나뭇잎이 다 떨어져버린 고동색 나무 기둥 같아 보였다. 그들은 한 쪽의 코믹한 그림처럼 희한한 자세를 취하고 있었

다. 그 그림은 유마지 읍에서 토기 주전자를 팔고 있는 노인이 바퀴가 하나 달린 리어카에 토기 주전자를 싣고 온 힘을 다해서 밀고 가는 모습을 연상시켰다.(Ø)

나는 부소전 어머니의 헝크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흰자위만 보이는 괴상한 표정의 눈을 보았다. 그 눈은 마치 남의 집 앞에서 밥통을 들고 우두커니 서서 밥을 구걸하는 거지의 눈빛처럼 뭉가를 구걸하고 있는 것 같았다. 곽장인이 갑자기 사나워지기 시작했다. 나는 더럭 겁이 났다. 나는 그 날 밤 어둠 속에서 엄청난 힘으로 큰 칼을 휘두르며 사람의 목을 찢던 형상을 떠올렸다. (Ø) 나는 빨리 자리를 떠나겠다고 맘먹고 발걸음을 옮기려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입에서 무슨 소리가 새어 나올까 봐 겁이 났고, 심장은 쿵당쿵당 뛰고 있었다. 내가 입을 크게 벌리고 숨을 죽이며 막 뒷걸음질치려고 할 때 무거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신음소리와 함께 부소전 어머니의 탄식 소리도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저 깊은 연못 바닥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것 같았다. (Ø)

(Ø)천장에 있는 창문으로부터 쏟아지는 햇빛 아래 곽장인이 우뚝 섰다. (Ø) 나는 마치 비 온 다음날 고목 아래 자라는 검은색 지붕의 독버섯을 본 것 같았다. 그것은 추하고 무식하고 징그럽게 생긴 것이었다. (Ø) 그는 농사꾼이 쉬려고 논두렁에 앉을 때처럼 의자 위에 털썩 주저앉아서 다리를 벌리고 담배를 하나 꺼내 불을 붙였다. 부소전 어머니의 양다리는 힘없이 침대 밑으로 축 늘어졌다. 그 다리로는 영원히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74-75)

**TT2:** 침대 위에 남자와 여자가 누워 있었다. 언뜻 보아선 밝게 빛나고 있는 흰 밀가루 자루 같았다. (Ø) 잠시 후, 남자의 얼굴이 또렷이 보였다. 나는 간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둠 속에서 큰 칼을 휘두르며 사람의 목을 치던 그 남자의 모습이 떠올랐다.(Ø)

어서 빨리 자리를 떠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다. 그 남자가 무거운 신음 소리를 내뿜었다. 곧이어 푸사오추안 어머니의 탄식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저 깊은 연못 바닥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것처럼 아득했다. (Ø) (263)

(1-2) 남녀혼숙

**ST:** [...] 马戏团的人似乎很随便, 男男女女地挤在一起睡, 大白天的就搂在一个被窝里。那个团长竟然当着那么多眼睛, 把一个女孩拉坐在自己的腿上, 而那个女孩并不逃脱, 微带羞涩, 笑眯眯地用一只长胳膊绕住他的脖子。几个年轻教师也装得无所事事的样子从这里经过, 然后走到一边议论:“艺人嘛, 就这样子的。”“常年漂流, 也是自然的事情。” (70)

**TT1:** [...] 곡마단 사람들은 제멋대로인 것처럼 보였는데,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한방에서 잤으며 대낮에도 한 이불 속에서 뒹굴고 있었다. 단장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어린 소녀 하나를 무릎에 앉히고 있었는데, 그 소녀는 부끄러운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달아날 생각이 전혀 없는 얼굴로 미소마저 띤 채 긴 팔로 단장의 목을 감고 있었다. 몇몇 젊은 선생들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그 교실 앞을 지나며 그 광경을 보고는 한 곳에 모여 얘기를 나누었다.

“판따라들은 다 저렇다니까.”

“떠돌이 생활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겠지.” (123)

**TT2:** [...] 곡마단 사람들은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한방에서 지냈다. (∅) (101)

(1-3) 미성년/혼전 임신

**ST:** 事后, 他告诉我, 在郝家兄弟施刑的空隙间, 他竟然很荒唐地想起许多曾使他神魂颠倒的情景来:四周芦苇高高, 与天际相接, 绿色盈盈欲滴, 几只如鸽卵大小的深黄色小鸟, 在芦苇叶上跳跃, 啁啾不停;她躺在草上, 粉白的身体一派安静, 两个如梨大小的隆起之上, 各有一粒樱桃大小、暗红如玛瑙色的小点儿;一双无力的手, 抵挡着他的胸膛……就是这样一个女孩儿, 她的肚子居然大了, 到了后来, 竟尖尖地挺了起来, 挺得那样好看, 像一只放大的椭圆形的鸭蛋, 他甚至闭起双眼, 想像着那个即将出世的由他与她创造出来的那个孩子。(508)

**TT1:** [...] 나중에 부소전은 내게 학가네 형제가 고문을 하는 틈에도 황당하게 요망이 그의 정신을 빼놓았던 장면들이 떠올랐다고 고백했다. 사방에 높게 자란 갈대가 하늘을 찌르고, 푸른빛이 똑똑 흐르는 잎사귀와 비둘기 알만한 짙은 황색 새가 갈대 위를 날며 끊임없이 지저귀며 조용히 풀밭에 누워 있던 그녀의 우윳빛 몸뚱이, 배만한 크기의 봉긋 솟은 젖가슴 위

로 보이던 앵두 같은 암홍색 작은 꼭지, 가슴을 가리던 힘없는 양 손…….  
그런 소녀의 배가 점점 커지더니 이젠 남산만해진 것이다. 불룩한 배는  
확대한 타원형 오리알처럼 예쁘기 그지없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장래에 나  
올 어린아이까지 상상했다. (105)

**TT2:** (∅) 그는 두 눈을 감고 장차 태어날 자신의 아기를 상상했다. (302)

(1-4) 성적 내용의 언어유희적 표현

**ST:** 那些妇女与孩子停止了追打, 站在高堤上, 跺着脚, 挥舞着拳头, 继续大骂  
“狗日的轮船”。舱中有一男人就问别人:“这狗怎么日轮船?”于是舱中一片  
大笑。 (106)

**TT1:** 그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배를 따라오는 것을 포기한 채 높은 둔덕에서 발  
을 구르고 주먹을 휘두르며 계속해서 욕설을 해댔다. “씨팔놈의 배!”  
배 안에 있던 한 남자가 다른 사람을 향해 물었다. “배가 누구랑 씹을 한  
다고 저래요?” 사람들이 모두 배꼽을 잡았다. (197)

**TT2:** 아낙네와 아이들은 따라오기를 포기하고 강기슭에서 발을 구르고 주먹을  
휘둘렀다. (∅) “이 몸쓸 놈의 배!” (∅) (368)

(1-5) 성적 비속어

**ST:** 傅绍全忽然跑到家中, 取出那把弹弓, 然后站在街中心叫骂起来:“谁药我  
鸽子的, 我就操他妈!操他姐姐!操他妹妹!……我要用弹弓把狗日的眼珠子  
打出来!……”他用尽了记忆中的一切辱骂语汇, 像疯子一样, 在街上使劲  
地跳着, 后来竟然不顾一街的姑娘和小媳妇, 一抽裤带, 往脖子上一挂, 提  
着裤子, 继续骂那些他并无经验的话:“操你妈!操你姐姐!操你妹妹!……”  
他那瘦削的屁股一撅一撅的, 弄得一街围观的人都笑了起来。 然而两天  
后, 当他得知药鸽子乃为八蛋所为时, 他既没有敢操八蛋的妈妈, 也没有  
敢操八蛋的姐妹们——八蛋也无姐妹供他作为, 自然也没敢用他的弹弓射  
下人家的眼珠。他太清楚八蛋一家的厉害了。他只能在看不见八蛋的情  
况下, 在嘴上把八蛋的妈妈操了几遍。 (197-198)

**TT1:** 부소전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새총을 가지고 나오더니 큰길에 선 채  
로 악을 썼다. “어떤 새끼가 내 비둘기들을 죽였어? 씨팔! 내가 그놈 에미  
를 강간하고 말 테다! 그리고 그 누나, 동생도 강간할 거야!(가만두지 않



을 거야/2009년판) 새총으로 그 개 같은 새끼 눈깔에 구멍내고 말겠어!” 그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거의 미친 듯이 거리를 쏘다녔고, 거리에 있는 처녀들이나 부녀자들의 눈도 아랑곳하지 않고 허리띠를 풀러 목에 걸친 후 바지를 붙잡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전혀 없었던 경험들을 욕으로 쏟아내었다. “네놈의 에미, 누나, 여동생과 씹(그 짓을/2009년판)할 거야!”

장사꾼들은 비쩍 마른 엉덩이를 썰룩거리며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부소전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

그러나 이틀이 지난 후 부소전은 빠판이 그 약을 뿌렸다는 걸 알았지만 감히 빠판의 어머니나 여동생들과 ‘씹(그 짓을/2009년판)’ 할 수 없었다. 빠판에게는 자매가 없었기 때문에 그에게 그럴 만한 기회도 제공되지 않았지만, 있었다 하더라도 빠판의 누나를 감히 건드릴 수 없었을 것이다. 부소전은 빠판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저 빠판이 눈앞에 보이지 않을 때만 입으로 빠판의 엄마와 몇 번이고 ‘씹(그 짓을 /2009년판)’을 했다. (80-81)

**TT2:** 푸사오추안이 갑자기 집 안으로 들어가 새총을 가지고 나오더니 큰길에 선 채 약을 썼다. “어떤 새끼가 내 비둘기를 죽였어? 개새끼! 내가 그놈의 어미를 가만두나 봐라! 새총으로 그 개 같은 새끼 눈깔에 구멍을 내고 말겠어!”

그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퍼부으며 미친 듯이 거리를 쏘다녔다. (○) 장사꾼들은 비쩍 마른 엉덩이를 썰룩거리며 돌아다니는 푸사오추안을 보면서 배꼽을 잡고 웃었다.

이틀이 지난 후, 푸사오추안은 빠판이 눈에다 농약을 뿌렸다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감히 빠판네 식구들을 건드리지는 못했다. (○) 빠판네 식구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 (268)

#### (1-6) 자살 암시

**ST:** [...] 人们在等待那个戴一块杏黄色头巾的女挎着白篮子送柿子, 然而却永远也等不到了——她像睡着了一样, 浮在河那边的荷花丛里, 再也不能醒来了。(83)

**TT1:** [...] 사람들은 모두 누런 수건을 머리에 올려놓은 그녀가 하얀 광주리에

감을 가득 담아 나눠줄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영원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강가 연꽃 숲 사이에 조용히 떠 있었고 아무도 그녀를 다시 살릴 수는 없었다. (143)

**TT2:** [...] 사람들은 누런 머릿수건을 쓴 그녀가 하얀 광주리에 감을 가득 담아 나눠 주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런 일은 영원히 일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잠든 것처럼 강가 연꽃 옆에 떠 있었다. (116)

(4-1)

**ST:** 马水清属于第一种人。(9)

**TT1:** 마수청은 첫 번째 부류에 속하는 인간이다. (25)

**TT2:** 마수이청은 무엇이든 지시를 하려고 하는 첫 번째 부류에 속했다. (17)

(4-2) 역자 주

**ST:** 下午, 马水清从口袋里掏出一把巴豆给了谢百三。谢百三把它们全都撒在了马料里。(73)

**TT1:** 그날 오후 마수청이 주머니에서 파두(巴豆: 중국 사천성, 복건성 등에서 생산되는 한약재료 그 열매는 변비 치료제로 쓰이는데, 독성이 매우 강하다-역자)를 꺼내 서백삼에게 주었다. 서백삼은 그 파두를 말 여물통에 쏟아 넣었다. (127)

**TT2:** 그날 오후 마수이청이 주머니에서 파두\*를 꺼내 세바이싼에게 주었다. 세바이싼은 파두를 말 여물통에 쏟아 넣었다.

\* 파두: 변비 치료제로 쓰이는 한약재료, 독성이 매우 강하다. (103)

(4-3) 작가의 개인적 경험

**ST:** 一九八八年十月, 台湾一家大报社与大陆一些杂志社与出版社联合搞征文, 那天在国际饭店召开新闻发布会。在会后举行的宴会结束后, 一位台湾朋友对我说大陆一些人吃相不好看。我听了, 并未反驳, 因为她说的是事实。大陆人曾有过一段饿怕了、饿坏了的日子。我想总有一天, 在他们完全失去这一记忆且又脑满肠肥之后, 他们也会面对一桌丰盛的酒席, 摆出一副漫不经心地夹一点菜随便尝尝的斯文而优雅的样子。(26)

**TT1:** 1988년 10월, 대만의 대표적인 한 신문사와 중국 대륙의 몇몇 잡지와와

출판사가 연합해서 글을 모집한 적이 있는데, 그날 국제호텔에서 대외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 후 연회를 마쳤을 때, 대만 친구 한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중국 대륙에서 온 몇몇 사람의 음식 먹는 모습이 볼썽사납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도 뭐라 반박할 말이 생각나지 않았다. 그 친구가 한 말이 사실이었기 때문이었다. 대륙 사람들은 이미 한 시절 기아에 허덕이며 굶주림의 공포를 맞본 적이 있다. 그들도 언젠가 호의호식으로 살이 피둥피둥 찌면, 그 배고팠던 기억을 완전히 잊고 고급요리 앞에서 우아하고 고상한 모습으로 맛을 음미할 수 있을 것이다. (50)

TT2: (∅) (39)

(4-4) 소재목의 번역

	ST	TT1	TT2
1	乔桉	차오안	기선 제압
2	白麻子(一)	백곰보	은밀한 거래
3	马戏团	꼭마단	첫사랑
4	柿子树(一)	감나무	잘못된 선택
5	丁黄氏和丁杨氏	정황씨 정양씨	사랑과 우정 사이
6	大串联	혁명적 대연계	붉은 깃발
7	蓝花(一)	쪽빛 야생화	일기장 분실 사건
8	阁楼(一)	다락방	어머니와 아들
9	染坊之子(一)	염색공장 아들	네 탓이 아니야
10	柿子树(二)	감나무2	짜사랑은 괴로워
11	红瓦房	빨간 기와	안녕, 빨간 기와

❖ ABSTRACT

The ‘Refraction’ Aspect of Young Adult Literature:  
Focus on Functional Relationships with  
Translation Norms

Choi, Ji Young  
Dankook University

Meng, Yang  
Dankook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ontrol factors for Lefevere’s ‘refraction’ through functional relationships with translation norms and to analyze the refraction patterns of children's literature by applying this information to two types of translations with different readers of Chinese children's literature, “紅瓦”, TT1 for adults, and TT2 for young adults.

For Lefevere, text refraction is 'acculturation' caused by control factors of the TT socio-cultural system, and the categories and contents are ambiguou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ne another, making it difficult to apply them in practice because control factors are conceptualization of the culture. Attempts to understand refraction in terms of translation norms are attributable to the following three reasons: first, both Lefevere and norm theorists share the hypothesis that 'translation is a manipulation within the TT culture' and find the purpose and the cause of text transformation in the TT culture system; second, norms play a functionally similar role to control factors in such a TT culture system; and finally, the correlation between norms and text

transformation is relatively clear in scope and content compared to the relationship between Lefevere's control factors and refraction. This is because the allowable range is relatively narrow compared to adult literature, making it easy to categorize through inductive research.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understand the control factors of refraction as norms in terms of functionality and categorize the contents of norms into the following four categories: 1) enhancement of socially and educationally appropriate values for young adults' emotions, 2) preservation of Korean values in young adults' ethics and morals, 3) use of language suitable for cognitive and language development in young adults, and 4) better understanding and easy delivery, and then compare this with TT1 based on the existing empirical research on the norms of children's and young adult literature, and finally analyze the refraction patterns of TT2 by control factors to gain an opportunity to assess the desirable translation direction of young adult literature.

Key Words : Lefevere, refraction, young adult literature, translation norms, ideology, poetics

■ 논문투고일 : 2022. 05. 09

■ 심사완료일 : 2022. 05. 31

■ 게재확정일 : 2022. 06. 02

